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4, pp.243-280
<https://doi.org/10.29212/mh.2020.114.24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아리마 세이호(有馬成甫)의 『조선역 수군사(朝鮮役水軍史)』(1942)에 보이는 이순신 비판론

김준배*

1. 서론
2. 아리마 세이호와 『조선역 수군사』
3. 『조선역 수군사』 속의 조선 · 이순신 비판론
4. 해전사로서의 의의(意義) 상실
5. 결론

1. 서론

본 논문에서 살펴 볼 것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시점에 간행된 『조선역 수군사(朝鮮役水軍史)』 속에서 이순

* 해군사관학교 제2외국어학과 조교수

신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에 관해서이다. 『조선역 수군사』란 ‘조선역=임진왜란(壬辰倭亂)’의 ‘수군=해전’에 관한 ‘사(史)’로서, 현대 한국어로 풀이하자면 ‘임진왜란 해전사’ 정도의 의미이다. 이 책은 당시 해군 소장(少將)이었던 아리마 세이호(有馬成甫, 이하 세이호)에 의해 간행되었는데, 그는 군사사(軍事史) 전문가로서 이미 전쟁사에 관한 다양한 저술을 간행한 인물이었다. 그러한 그에 의해 저술된 『조선역 수군사』는 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에 의하면 병학(兵學)의 입장에서 저술된 책으로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이하 히데요시)가 수군의 강화를 등한시했던 것, 그리고 조선 수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인해 조선 수군의 뼈아픈 반격을 받았고, 이를 전쟁에 당면한 이 시기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¹⁾ 이러한 기타지마 만지의 지적대로 이 책은 역사가라기보다 군사사 전문가인 저자에 의해 저술되어, ‘병학’ 즉 ‘군사학(軍事學)’의 측면에서 임진왜란을 분석하고 있는 혼치 않은 저술이다. 이 책은 임진왜란 당시 개개 해전의 경위와 함께, 조선·일본 양쪽 군대의 선박 구조, 병기의 기능 등을 상세하게 연구하고 있다.²⁾ 따라서 국내에서 임진왜란 해전에 관한 연구를 전개한 많은 연구자들이 세이호의 『조선역 수군사』를 활발히 활용하기도 하였다.

『조선역 수군사』의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1942년 전까지 발행되어 왔었던 일본의 수많은 임진왜란 관련 문헌과는 다른 시각으로 이순신과 임진왜란 해전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이호는 이순신 및 임진왜란 해전에 대해 학계의 평가는 물론, 일본 해군의 주류 평가와도 다른 반응, 즉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렇다면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당시 군사사 전문가로서 전쟁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세이호의 눈에 이순신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었으며, 그가 이

1) 北島万次,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早稲田大学博士論文, 1990, p.51.

2) 北島万次(1990), 前掲書, pp.51-52.

순신을 그렇게 바라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를 살펴봄을 통해 당시 흔치 않았던 일본의 이순신 비판론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이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아리마 세이호와 『조선역 수군사』

가. 아리마 세이호의 약력

세이호의 저술 속 이순신에 관해 알아보기에 앞서, 저자 세이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의 사상은 어떠한지에 관해 짚어보고자 한다. 『일본 육해군 사전(日本陸海軍事典)』에 의하면 그는 1884년 구마모토(熊本) 현에서 태어나서, 1904년 해군병학교 제33기로 입학하고 1905년 12월 이를 졸업하여, 1906년 소위로 임관하였다. 이후 그는 1916년에 소좌(少佐, 소령)로 진급하였으며 포술학교 교관 등을 역임하였고, 1925년에는 대좌(大佐, 대령)로 진급하여 항공본부 과장 등을 역임하다가 1929년 예비역으로 편입되었다.³⁾ 해군을 퇴역한 그는 이후 고쿠가쿠인(国学院) 대학교에서 화포(火炮)에 관한 연구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⁴⁾ 본격적으로 군사사(軍事史) 전문가로 활약하게 된다. 그와 해군의 인연은 퇴역으로 인해 끊어진 것이 아니었다. 1932년에서 1935년까지 그는 해군성(海軍省)의 촉탁(囑託)으로서 『조병사(造兵史, 병기 생산에 관한 역사)』 편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는 화포 전문가였던 그의 전문성이 발휘된 것이었다. 이후 그는 1936년에는 <군사사학회(軍事史學會)>의 이사로서 활동하였으며, 이 시기 특히 그는 해군사에 관한

3) 原剛・安岡昭男編, 『日本陸海軍事典』, 新人物往來社, 1997, p.445.

4) 平田俊春, 「有馬成甫博士追悼の記」, 『軍事史學』9-3, 軍事史學會, 1973.12, p.107.

다양한 연구를 펼쳤다.⁵⁾ 이후 1941년 중일전쟁이 격화되자 그는 해군에 다시 소집되었으며, 1942년에는 제2해상호위대(第二海上護衛隊) 사령부에 배속되었고, 1943년에는 소장으로 진급하였다.⁶⁾

세이호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국방사학회(國防史學會)>를 주재(主宰)하거나, 1962년에는 『화포의 기원과 그 전승(火砲の起源とその伝流)』⁷⁾을 간행했으며, 1967년에는 『일본 병법 전집(日本兵法全集)』⁸⁾ 시리즈에 『갑양군감』과 고슈류 병법(甲陽軍鑑と甲州流兵法), 「호조류 병법에 관하여(北条流兵法について)」, 「아마가류 병법에 관하여(山鹿流兵法について)」와 같은 병법에 관련된 연구를 게재하고 있는 등, 병법·화포·군사사에 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다가, 1973년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군인으로서보다 군사사 전문가로서 더 이름이 높았던 인물로서, 전역한 이후 더욱 빛을 보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아리마 세이호의 사상

세이호의 임진왜란 해전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저술이자, 본 논문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선역 수군사』는 1942년 간행된다. 이 글의 원저(原著)는 서문에서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⁹⁾ 본인이 1934년 9월부터 1935년 8월까지 『우미토 소라(海と空)』라는 잡지에 연재한 「조선역에서 수군의 행동 및 작전을 논함(朝鮮役に於ける水

5) 이 당시 세이호는 다음과 같은 해군사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有馬成甫, 「白村江の戦闘とその教訓」, 『軍事史研究』6-4, 軍事史學會, 1941.8; 有馬成甫, 「源平の海戦を論ず」, 『海と空』3-9, 海と空社, 1934.8; 有馬成甫·櫻井成広, 『源平の海戦とその教訓』, 軍事史學會, 1939; 有馬成甫, 「織田信長と海軍」, 雄山閣編輯局編, 『日本海軍史』, 雄山閣, 1934.

6) 原剛·安岡昭男編(1997), 前掲書, p.445.

7) 有馬成甫, 『火砲の起源とその伝流』, 吉川弘文館, 1962.

8) 石岡久夫編, 『日本兵法全集』, 人物往来社, 1967.

9) 有馬成甫, 『朝鮮役水軍史』, 海と空社, 1942, 自序, p.2.

軍の行動並に作戰を論ず)이라는 임진왜란 해전에 관련된 논문을 모아 여기에 살을 붙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1934년 이 글을 저술할 당시 세이호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조선역에서 수군의 행동 및 작전을 논함」이라는 글을 발표하기 1년 전인 1933년에 발표한 「제국 해군 건설의 정신과 그 발전(帝國海軍建設の精神とその發展)」이라는 글에서 세이호는 “근세사에 있어 일본의 흥륭(興隆)은 경탄 그 자체”라며, “세계사에 비추어보아도 우리나라의 진전은 경이롭고 장래에도 실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일본 흥륭에 대한 경탄은 바로 일본해군의 발전에 대한 경이일 뿐”이라고 함으로써, 그가 이 시기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다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 해군의 발전에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또한 그는 “지금 우리 해군력의 향상은 구미인(歐美人)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위협으로까지 과장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있어서는 구세주로서 갈망마저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일본 해군이 “중대한 세계사적 의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¹¹⁾ 이 시점에서 이미 그는 ‘아시아의 구세주로서의 일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이호는 동년 발표한 『비상시 해군 국방 독본(非常時海軍國防讀本)』이라는 책에서도 “동아시아의 평화를 확립한 것은 실로 제국해군”이며, “제국해군이 훈련, 연습 등에 매진하는 것이 조국을 안태(安泰)하게 지키는 것이자 동양의 평화·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²⁾ 이처럼 그는 일본의 해군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러한 일본의 해군이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고,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 有馬成甫, 「帝國海軍建設の精神とその發展」, 『日本精神講座』9, 新潮社, 1935, p.115.

11) 有馬成甫(1935), 前掲書, p.116.

12) 有馬成甫, 『非常時海軍國防讀本』, 海軍協會, 1933.8, p.25.

다. 또한 그는 같은 책에서 “일본해군의 장족의 진보는 일본으로 하여금 명실상부하게 태평양의 주인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¹³⁾ 그가 만주사변(滿洲事變)을 계기로 일본이 태평양의 주인이 되었다고 의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주체를 일본 해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사 수군역』의 원저가 되는 「조선역에서 수군의 행동 및 작전을 논함」이라는 글은, 이러한 그의 일본에 대한 자부심과 해군에 대한 자부심이 충만하던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세이호의 태도는 「조선역에서 수군의 행동 및 작전을 논함」을 발표한지 1년 뒤인 1935년의 「신흥 일본의 각성과 해군건설의 과정(新興日本の覺醒と海軍建設の過程)」이라는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현대의 일본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세계의 하나의 경이이다. 또한 경탄이다. 혹자는 일종의 경이롭고 무서운 존재로 보고 있기도 한다”고 하여, 자국 발전에 대한 자부심을 세계의 평가 속에서 찾고 있다.¹⁴⁾ 즉 『조선사 수군역』의 원저, 「조선역에서 수군의 행동 및 작전을 논함」이라는 글을 작성할 당시 세이호는 세계사 속에서 일본은 매우 경탄스러운 존재이자, 아시아 민족들에게 구세주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일본 해군은 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그가 해군성의 촉탁으로서 『조병사』 편찬에 참여하고 있었던 시기와 일치하는데, 그러한 만큼 「조선역에서 수군의 행동 및 작전을 논함」에는 그의 일본과 해군에 대한 자신감과 우월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중일전쟁(中日戰爭) 발발 이후 가속화되어, 그는 일본이 ‘신의 나라(神國)’이며, 일본의 병학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일본 우월주의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

13) 有馬成甫(1933.8), 前掲書, p.27.

14) 有馬成甫, 「新興日本の覺醒と海軍建設の過程」, 『講演』4-3(下旬號), 聯合通信社, 1935.3, p.1.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은 본격적으로 전체주의 체제로 돌입한다. 이듬해인 1938년 7월 세이호는 「시사잡감(時事雜感)」이라는 글에서 ‘국체명징(國體明徵) 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각 학교에서 <일본 국체학(國體學) 강좌>를 열고, “신도학(神道學)·국학사(國學史)·일본 정신사·일본 병학사 등을 일관한 일본 국체관념의 특수성을 연구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⁵⁾ 이는 그가 신국사상(神國思想)에 본격적으로 젖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이호가 해군에 의해 다시 소집되어 군인으로 복귀한 1941년, 위에서 언급한 국체명징 운동의 일환으로서 세이호는 「황국 병학의 원리(皇國兵學の原理)」라는 글을 발표한다. 그에 의하면 “황국 병학은 황위(皇威)를 발휘하는 도를 말하는 학문”이며, “우리나라의 본의를 명징하게 하여 그 본질이 되는 신무(神武)의 도를 현양하고자 하는 것”이기에,¹⁶⁾ “소·중·고에서 국체의 본의를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⁷⁾ 각 학교에서 국체의 본의를 교육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국체명징 운동의 요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세이호는 이 글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군사학을 소개하고, 이를 타국의 군사학과 비교함과 동시에 타국의 군사학을 비판함으로써, ‘우월한 일본’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한다. 여기에서 그는 『고지키(古事記)』 등의 서적을 인용하여 “황국은 신무(神武)의 나라”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병학의 우수성을 칭송하는 동시에¹⁸⁾ 중국과 서양의 병학을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중국의 병학은 ‘무(武)’를 단순히 위력(威力)으로 해석할 뿐이며, 도덕성이 결여된 학문이다.¹⁹⁾ 그에 의하

15) 有馬成甫, 「時事雜感」, 『2600』6-2, 自衛社, 1938.7, p.54.

16) 有馬成甫, 「皇國兵學の原理」, 鹿子木貞信編, 『皇國學大綱』, 同文書院, 1941, p.26.

17) 有馬成甫(1941), 前掲書, p.33.

18) 有馬成甫(1941), 前掲書, p.3.

19) 有馬成甫(1941), 前掲書, p.10.

면 『사기(史記)』 혹은 『손자병법(孫子兵法)』은 ‘병은 흉기이다(兵者凶器也, 『사기』)’라든가 ‘병은 부정한 방법이다(詭道兵者詭道也, 『손자병법』)’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을 결여한 단순한 위력을 지칭하는 학문에 불과하며, 따라서 일본의 병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여 일본 병학의 우수성을 강조한다.²⁰⁾ 또한 서구의 병학은 최근에 이르러 처음 일본 병학 수준에 도달했으며, 종래 전쟁 기술학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었던 서양 병학이 처음으로 사상·정치·경제 기타 여러 방면을 총괄하는 일본 병학의 이념에 근접하여 하나의 영역을 개척했다고 평가하여,²¹⁾ 일본의 전통적인 병학이 최근까지 서양의 병학보다 우수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1934년의 원저 「조선역에서 수군의 행동 및 작전을 논함」이 『조선역 수군사』으로 발전하게 되기까지 세이호는 일본에 대한 우월의식과 신국 사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고, ‘황국의 병학은 세계 제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다. 『조선역 수군사』의 성립

『조선역 수군사』의 내용은 앞서 소개한 1934년의 「조선역에서 수군의 행동 및 작전을 논함」이라는 논문과 해전의 경과 부분에서는 거의 일치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자서(自敍)의 추가와 일본 및 조선 각 수군의 발달 상황에 대한 추가적 기술, 그리고 후반부에 임진왜란 전반에 관한 분석의 추가라고 할 수 있다. 자서(自敍)에는 당시 일본의 시책이었던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옹호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기술하고 있는데, 따라서 『조선역 수군사』의 1942년판 간행은 시대의 요구에 의해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옹호하

20) 有馬成甫(1941), 前掲書, p.16.

21) 有馬成甫(1941), 前掲書, p.25.

는 의식하에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식은 그가 당시 제2 해상호위대에 배속 받은 해군 소장으로서 전쟁의 한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세이호는 자서에서 “우리나라는 건국의 시초부터 대륙과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는 진무 덴노(神武天皇)의 황도경영 조칙(皇都經營の詔)에 ‘팔굉일우(八紘一宇)’라고 선언하신 웅장하고 관대하신 말씀에도 명백하게 나타나시고 있다”²²⁾라고 하며,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은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대륙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복귀하고자 하는 행동”²³⁾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는 것은 건국의 시초부터 대대로 내려온 것으로서, 초대 덴노가 선포한 ‘온 세상이 하나’라는 조칙에 의한 것이며,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는 것은 일본의 역사를 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대륙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이다. 세이호는 이에 더해 현재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확립’이라는 목표가 일본 본래의 국시(國是)라고 주장하며, 전형적인 당시의 군국주의자들의 논리를 보여준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을 목표로 하여 매진하고 있지만, 이는 또한 당연히 황국 본래의 참모습으로 돌아가 팔굉일우의 국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 이외는 아닌 것이다.²⁴⁾

22) 我邦は肇國の始より大陸とは密接不可分の關係に在った。是は神武天皇皇都經營の詔に八紘一宇と宣せられた雄輝寛大の御詞にも顯現せられて居る。(有馬成甫(1942), 前掲書, 自序, p.1).

23) 我國が肇國以來の大陸との正常なる關係に復歸せんとする行動(有馬成甫(1942), 前掲書, p.1~2).

24) 今や我國は大東亞共榮圈の確立を目指して邁進しつつあるが、之れ亦當に皇國本來の眞姿に還り、八紘爲宇の國是を實現せんとするものに外ならないのである。(有馬成甫(1942), 前掲書, p.2).

세이호에 의하면 임진왜란도, 현 시점의 중일전쟁도 모두 침략전쟁이 아니다. 다만 이는 일본이 본래의 참모습으로 돌아가서 대륙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1931년 만주사변(滿洲事變)이 발발한 이후부터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하기까지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²⁵⁾ 이 시점에 임진왜란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중일전쟁과 과거 임진왜란이 ‘대륙침략’이라는 면에서 오버랩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이호 또한 이 시점에서 임진왜란 해전은 현재의 중일전쟁과 유사하여 좋은 연구대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는 1942년 현 시점에 『조선역 수군사』를 발간하고 있다고 밝힌다.²⁶⁾ 따라서 『조선역 수군사』 또한 대륙침략을 수행하고 있던 1942년 당시, 과거 중국을 상대로 활약했던 일본 무사들의 영웅담을 소환하여 현재 일본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려는 의도하에 발간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군사사 전문가로서 1942년 당시에는 다시 해군 장교가 되어 전쟁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세이호의 눈에 임진왜란 해전과 조선, 그리고 이순신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었을까?

25) 김문자에 의하면 히데요시는 1930년대 이후 조선 침략의 선구자 이미지에서 대륙 침략을 꿈꾸는 일본의 팽창주의와 세계 제패를 상징하는 인물로 변화해 나갔다. (김문자, 「에도시대 豊臣秀吉에 대한 인식」, 『중앙사론』46, 중앙대 중앙사학연구소, 2017.12, p.294.) 또한 1936년이 되면 잡지 『역사공론(歷史公論)』에서 「도요 토미 히데요시」 특집호를 발표하여 히데요시에 대한 현장을 시도하였으며, 1937년 3월에는 정부에 의해 <국체의 본의(國體の本義)>가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 히데요시의 존왕정신(尊王精神)이 강조되었다. 이에 더해 1938년 『역사공론』 7권 1호는 「일본전사와 전쟁미담(日本戰史と戰爭美談)」 특집호로 구성되어, 이 안에서 임진왜란을 비롯하여 청일전쟁 및 의화단 운동(義和團運動)에서의 미담을 수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히데요시 및 각종 전쟁에서 활약한 일본인들에 대한 미담이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다.

26) 有馬成甫(1942), 前掲書, p.2.

3. 『조선역 수군사』 속의 조선·이순신 비판론

세이호는 앞서 살펴보았듯 신국사상과 일본우월주의로 가득 차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한 만큼 세이호는 이 책에서 일본인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상대였던 조선인들과 조선의 제도, 특히 봉당정치(朋黨政治)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이순신에게도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이 당시 일본에서 임진왜란사를 서술할 때 조선의 정치제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이순신에 대한 비난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조선인과 조선의 정치제도에 대한 비판

처음 살펴볼 『조선역 수군사』의 대목은 1592년 일본군의 침략을 목격한 경상우수사(慶尙右水師) 원균(元均)이 전라좌수사(全羅左水師)였던 이순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다. 이 당시 이순신은 각자 경비하는 구역이 다르기에 조정의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한다.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이순신이 이를 거절하자 원균은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는데, 이 장면에서 세이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이에 이르면 일종의 비극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면으로 조선의 수군 제도에, 또한 국민정신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²⁷⁾

27) とあるに至っては一種の悲劇と言はねばならぬ。而して一面に於て朝鮮の水軍制度に、また國民精神に缺陷の存在を物語るものではないだらうか。(有馬成甫(1942), 前掲書, p.56).

세이호는 이순신이 조정의 명령 없이 움직이지 않은 것을 조선의 수군 제도와 국민정신에 결부지어 해석하고 있으며, ‘국민정신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한다. 또한 세이호는 이순신이 조정의 명령 없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그의 직책을 고려했을 때 적합하다며 일견 이순신을 옹호하는 듯하지만, 결국 일본의 군인정신으로 보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우군의 위급함을 보고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원래 이 일에는 그는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그의 직분이 전라도좌수사였기에, 관할 외인 경상도에 명령 없이 원조를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대충 이유로는 적합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인정신에 비추어 논해보면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²⁸⁾

이 대목에서 세이호는 일본의 군인정신이 조선의 군인정신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순신이 명령 체계를 따라 움직이는 것도 마치 군인정신이 부족한 것, 즉 군인정신 중 용기나 의협심 혹은 이타심이 부족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 그는 이순신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조선인의 개인주의, 조선 정치의 불건전함을 말해준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조선인의 개인주의적인 특장으로서, 실로 정치의 불건전한 상태가 인심에 반영된 일면이다.²⁹⁾

28) 彼は友軍の危急を見ても中々腰を上げなかった。元よりこの事には彼は一つの理由があった。それは、彼の職分は全羅道左水使であるから、管轄外の慶尙道に命令を得ずして赴援することは出来ないと言ふのである。これは一通りの理屈としては尤もなことである。然し我が軍人精神に照らして論ずれば言語同断である。(有馬成甫(1942), 前掲書, p.55).

29) これが朝鮮人の個人主義的な特長であって、実に政治の不健全な状態が人心に反映した一面である。(有馬成甫(1942), 前掲書, p.57~58).

세이호는 이순신의 이러한 행동을 조선인은 물론 조선의 정치·제도까지 비난하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그는 조선의 봉당제도에 관해서도 비난하고 있는데, 이순신이 하옥되는 대목에서의 세이호의 언급을 살펴보자.

이전부터 조선 조정 요인들 사이에는 동인(東人), 서인(西人)의 양 파벌이 있었으나 이 심각한 당쟁은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다. 임진년(壬辰年) 이래 국난에 조우해서도 이 봉당의 쟁투는 지속되었다. 그리하여 순신(동인)과 원균(서인)간의 질투·분개의 투쟁은 중앙정부에서의 양당의 투쟁을 관통하여, 이순신은 결국 면직당하고 잡혀서 심문(鞫問)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³⁰⁾

이처럼 세이호는 조선의 봉당의 쟁투가 임진왜란 중에도 이어졌음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에 의해 이순신이 면직당하고 심문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조선의 제도를 비난하는 동시에 그는 이순신이 원균을 구하러 가지 않은 태도를 지적하며 조선인의 국민정신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문화통치(文化統治) 시기 이순신에 대해 서술할 때 최대한 조선인들의 반응을 고려하였던 일본의 연구자가 보여주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³¹⁾ 민족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이 시기의 분위기를 설명해 준다.

30) 以前より鮮廷要人の間に東人西人の兩派があった。而してその深刻な黨争は久しい間続けられた。壬辰(文祿役)以来國難に遭遇してもこの朋黨の争鬪は繼續せられた。而して舜臣(東人)と元均(西人)との間の嫉妬憤炎の争鬪は牽ひて中央政府に於ける兩黨の争ひに關通し、李舜臣は遂に職を免ぜられ捕へられて鞫問を受くるに至ったのである。(有馬成甫(1942), 前掲書, p.219).

31) 김준배, 「일본 문헌 속의 이순신 표상(表象)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pp.394~416.

나. 이순신에 대한 비판

세이호는 조선인 개인의 성질과 조선의 정치·제도를 비난하는 한편, 당시 조선 수군의 지휘관들 또한 무능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먼저 그는 일본군 선발대의 상륙을 저지하지 못했던 경상좌수사(慶尙左水師)였던 박홍(朴泓), 경상우수사였던 원균을 비난한다. 다음은 해당 대목이다.

어쨌든 경상도 좌·우수사는 우리군의 상륙·진출에 대해 하등의 행동도 하지 못했고, 무능의 극치였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³²⁾

박홍과 원균에 대한 비난은 한국에서도 흔한 것이지만, 세이호는 이들에 대한 비난 이후 이순신 또한 ‘큰 활약을 하지 못했다’고 서술한다. 다음은 해당 대목이다.

경상좌수사 박홍 및 동(同) 우수사 원균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능함을 발휘했다고 한 것은 전술한 대로이나, 그렇다면 오직 이순신만 크게 활약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다.³³⁾

세이호는 이순신의 활약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순신이 원균의 요청에도 원균을 재빨리 보내지 않은 것이 결국 원균의 분노를 사, 후에 원균으로부터 참소를 받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그 대목이다.

32) 兎も角慶尙道左右水使は我軍の進出上陸に対して何等の行動に出づる能はず、無能の極であったことは何人も之を否定することは出来ない。(有馬成甫(1942), 前掲書, p.49).

33) 慶尙左水使朴泓並い同右水使元均は何等為す所無くして、全く無能振りを發揮したことは前述の通りであるが、然らば獨り李舜臣のみ大に活躍したかと言ふに、然らずと言ふ外は無い。(有馬成甫(1942), 前掲書, p.54).

이러한 순신의 태도가 후에 이르러 원균이 모함하는 이유의 한 가지가 되었다. 즉 이순신이 투옥되기에 이른 원인을 만든 것이다. …(중략)… (이순신이) 머뭇거리며 지체한 것이 후에 여러 종류의 의혹을 낳은 것은 이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³⁴⁾

당시 일본에서는 원균이 소인배이기에 이순신을 질투하여 그를 실각시킨 것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세이호는 원균이 무능한 것은 사실이나, 이순신 또한 스스로 자신이 투옥된 원인을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정유재란(丁酉再亂) 당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도해 소식을 접하고 이를 요격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이순신이 이를 공격하지 않았던 대목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나는 전략상에서 고찰하여 이순신의 행동에 다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일본군이 속속 도착하는 정보를 얻었으나 어찌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려 진격할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인가? 그가 임진왜란 당초 머뭇거렸던 이유는 자기의 경비구역 외였다고 하는 구실이 훌륭하게 성립되었지만, 이번에는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서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최초와 동일한 구실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순신의 태도가 원균의 모함,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의 중상(中傷), 봉당의 질쟁(嫉爭) 등에 의해 죄를 묻게 된 근본적 원인이 된 것은 의심할 것 없는 것으로, 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순신의) 머뭇거리는 태도가 이순신 실각 원인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³⁵⁾

34) この舜臣の態度は後に至って元均の讒構の理由の一となった。即ち李舜臣が入牢するに立至った原因を作ったのである。…(中略)… 李舜臣の逡巡滯が後に諸種の疑惑を生み出したことは、これに依っても知ることが出来る。(有馬成甫(1942), 前掲書, p.56~57).

35) 吾人は戦略上より考察して李舜臣の行動に多大の疑問を有するものである。彼は日本軍が續々倒着するの報を得たるのであるが、何故に躊躇逡巡して進撃の態度に出でなかったか?彼の文祿に於ては逡巡の理由を以て自己の警備區域外のことであったと云ふ口實が立派に立つのであるが、今回は三道水師統制使として全責任を有する立場に在って最早同一の口實は許されないのである。この李舜臣の態度が元均の讒、巡邊使李鎰の中傷、朋黨の嫉争等によって罪せらるる基因を為したことは疑ないことであって、吾人はこの不可解なる逡巡の態度を以て李舜臣の失脚の原因の最大なるものと思考するのである。(有馬成甫(1942), 前掲書, p.220).

앞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이호는 이순신이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의 도해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은 것이 실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하며, 이를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평가한다. 즉 앞서의 인용문과 마찬가지로 이 대목에서 세이호는 이순신이 실각한 가장 큰 원인은 이순신 그 자신에게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그의 평가는 당시 이순신의 실각이 원균의 모함과 봉당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던 전반적 담론과는 상이한 것으로서, 그는 이러한 원균의 모함과 봉당의 질쟁의 근본적 원인이 곧 이순신의 태도였다고 주장한다.

세이호가 그의 저술에서 이순신을 비난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이순신을 칭찬하는 표현도 몇 군데에서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이순신이 명량 해전(鳴梁海戰)을 앞두고 단 12척의 배를 이끌고 일본 수군에 맞서겠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세이호는 “그 의기는 실로 칭찬해야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³⁶⁾고 적고 있다. 그러나 세이호가 이순신을 칭찬하거나 이해한다고 표현하는 대부분의 대목에는 항상 단서가 붙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진왜란에서의 이순신의 공적은 실로 혁혁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눈부신 전공을 이순신 개인의 전략적 수완으로 귀결하여 그를 찬미하는 것도 또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성공의 뒤에 조선 수군이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독특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³⁷⁾

이러한 독특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야말로 이순신 같은 영걸(英傑)을 기다려 위대한 공적을 보고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은 깊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일 것이다.³⁸⁾

36) その意氣は実に稱すべしと言はなければならぬ。(有馬成甫(1942), 前掲書, p.252).

37) 文祿役に於ける李舜臣の功績は、誠に赫々たるものであった。さればその花々しい戦功を、李舜臣一個の戰略の手腕に歸し、彼を讚美することも亦當然のことである。然し乍らその成功の裏に、朝鮮水軍が特種の制度を有し、且つ特種の武器を持って居たことを忘れてはならぬ。(有馬成甫(1942), 前掲書, p.147).

이 대목에서 세이호는 이순신을 ‘영걸(英傑)’이라고 칭하고, 그의 공적은 ‘눈부신’ 것이자 ‘실로 혁혁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는 이순신의 활약은 조선의 수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의 수군 제도가 이순신의 함대를 뒷받침하였기 때문에 이순신이 많은 공을 세운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가 앞서 “조선의 수군 제도에, 또한 국민정신에 결함이 존재한다”며 조선의 수군 제도를 맹렬한 비판한 것을 고려해본다면, 그의 이러한 주장은 일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주장으로서 처음 살펴보았던 원군의 구원 요청을 수차례 거절했던 것에 대해 세이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조정의 명을 받지 않는 한 출동할 수 없다고 원군을 보내는 것을 거절한 것은, 조선의 사정과 심정에서 생각해보면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⁹⁾

(이순신이 원병을 보내지 않음은) 아마 그의 지휘하에 있던 수군의 실력이 도저히 나아가 일전을 기할 실력이 없고, 또한 병사가 투지와 사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추정된다.⁴⁰⁾

그 또한 자기를 알았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⁴¹⁾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 세이호는 이순신이 출동하지 않은 이유를 나름대로 고찰하여, ‘이순신이 자신의 상황을 알았던 것’으로 해석하

38) 斯かる特種な制度が存在して居たればこそ、李舜臣の如き英傑を俟って偉功を奏することが出来たものであることは深く注意を要することであらう。(有馬成甫(1942), 前掲書, p.177).

39) 朝廷の命を受けざる限り出動する能はずと赴援を斷はったのも、朝鮮の事情と心情とより考ふれば、一応の理由であり得たであらう。(有馬成甫(1942), 前掲書, p.58).

40) 恐らく彼の指揮下に在りし水軍の実力が、到底直に立って一戦を期すべき實力を缺き、且つ兵士が鬪志を缺いて居ったためであらうと推定せらるる。(有馬成甫(1942), 前掲書, p.60).

41) 彼も亦自己を知るものと言はなければならない。(有馬成甫(1942), 前掲書, p.61).

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순신이 원균의 요청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은 그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든 ‘조선의 사정’이 존재했고, ‘군사들의 실력·투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순신이 때를 기다리고 행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세이호는 스스로 판단하기에 합리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였던 이순신의 행동에 대해 또한 ‘국민정신의 결함’이 존재하고, 이러한 태도는 ‘일본 군인정신에 비하면 언어도단’이며, ‘실각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처럼 세이호는 이순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평가는 1892년 일본 최초의 이순신 전기(傳記)인 『조선 이순신전(朝鮮李舜臣傳)』을 저술한 바 있는 오다기리 마스노스케(小田切萬壽助)의 서술 방식과 정반대이다. 오다기리 마스노스케가 이순신이 원균을 구하러 나서는 것을 지체한 것에 대해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와 같은 사소한 절차에 얽매이는 졸장부라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담략이 크고 매사를 밝게 처리하는 이순신은 이와 같이 좁은 소견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⁴²⁾며 이순신의 행동을 옹호한 것에 반해, 세이호는 이순신의 행동에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

한편 세이호는 일본의 무장이 한산도 해전(閑山島海戰)에서 전사한 것에 대해서는 “용감하고 장렬한 무장의 최후이다”⁴³⁾라고 표현하며 그 용맹함을 칭찬한다. 반면 한산도 해전에서 이순신이 총탄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를 지휘한 것에 대해 “순신이 총탄에 맞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⁴⁴⁾라고 기술한다. 이처럼 세이호의 저술 속에서 일본 무장이 전사한 것과, 이순신이 총탄에 맞아가며 활약한 것에 대한 평가에는 명백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42) 柴山尚則, 「文祿水師征韓始末—朝鮮李舜臣傳」, 『偕行社記事』82, 偕行社, 1892, p.11~12.

43) 有馬成甫(1942), 前掲書, p.87.

44) 有馬成甫(1942), 前掲書, p.83.

4. 해전사로서의 의의(意義) 상실

가. 임진왜란 해전의 의의 격하

『조선역 수군사』에서 세이호의 임진왜란 해전에 대한 평가 중 가장 눈여겨 볼 것은, 그가 당시의 임진왜란 해전이 전쟁 전체 국면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일본의 많은 역사서에서 해전이 임진왜란 전체 국면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했다고 지적하고 있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으며,⁴⁵⁾ 1890년대 및 1900년대에 일본 해군 장교들이 임진왜란 해전의 의의(意義)를 강조했던 것과는 상반된 것이었다.⁴⁶⁾ 이는 한산도 해전과 명량 해전에 대한 그의 평가에서 잘 나타난다. 먼저 그는 영국인 제임스 머독(James Murdoch)이 도쿄 제국대학에서 영문학교수로 재직하며 발간한 『A history of Japan』(1903) 속에 실린 한산도 해전에 대한 평가를 지적한다. 여기에서 제임스 머독은 한산도 해전을 극찬하며, 이는 “침략군에게 내려진 사형선고”였다고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는데, 세이호는 이를 비판한다.

【A history of Japan】(한산도 해전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해전 중 하나라고 믿을 수 있다. 이를 가리켜 한국의 살라미스(Salamis)⁴⁷⁾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침략군에 내려진 사형선고였다.⁴⁸⁾

45) 김준배(2020), 앞의 글, pp.312-315.

46) 김준배, 「메이지 시기 해군장교의 저술 속 이순신(李舜臣)-오가사와라 나가나리(小笠原長生)의 저술을 중심으로」, 『軍史』10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47) BC. 480년 9월 23일 제3차 페르시아 전쟁 중 그리스 연합해군이 살라미스 해협에서 우세한 페르시아 해군을 괴멸시킨 살라미스 해전을 가리킴.

48) So ended, we may well believe, one of the great naval battles of the world. It may well be called the Salamis of Korea. It signed the death-warrant of the invasion.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Kelly & Walsh, 1903, p.337).

【조선역 수군사】 이와 비슷한 논의는 우리나라(일본) 역사가들에게도 상당히 많다. 즉 이 해전의 패배를 갖고 해상권의 실추와 견주는 것으로서, 심한 것은 고니시 유키나카(小西行長)가 평양에서 나아갈 수 없었던 것도 이 해전의 패배에 의한 것이라고 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전에 참가한 일본 수군은 결코 전 수군이 아니며 단지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의 군대에 지나지 않았기에, 이 패전이 하등 육상군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 수군에 있어서 좋은 자극이 되어 처음 진심으로 해상작전을 계획하게 만든 좋은 영향을 주었고, 결국 정유재란에서 조선 수군을 전멸에 이르게 한 기인을 만든 것으로, 이 한 번의 전투를 갖고 전체 전쟁국면의 운명을 결정한 전투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믿는다.⁴⁹⁾

세이호 자신 또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당시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한산도 해전이 일본의 육군을 진격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이것이 결국 임진왜란에서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주장은 잘못됐으며, 이 전투에 참여한 것은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의 군대뿐이기에 육군의 행동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산도 해전의 결과로 인해 일본 수군은 전라 해상(海上)을 통해 평양의 육군과 합류할 수 없었고, 고니시 유키나카는 평양성에 고립되었으며, 결국에는 조선·명 연합군에 패배하여 강화회담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인과관계 때문에 메이지 시기 해군장교들이 이순신의 사례를 활용하여 해군력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러나 세이호는 한산도 해전의 의의에 대한 기존의 설을 부정한

49) これに似たる論議は我國の史家にも相当ある。即ち此の海戰の敗北を以て失墜と見做し、甚だしきは小西行長が平壤より進出する能はざりしことも、この海戰に敗を採ったことに起因すると論じて居るのである。然し乍ら此の海戰に参加した日本水軍は決して全水軍ではなく、僅かに脇坂の一軍に過ぎなかつたために、此の敗戦が何等陸上軍の行動に影響を與へざりしのみならず、我水軍に採つて善き刺戟となり、初めて真劍なる海上作戰を計畫するに至つた好影響を與へ、遂に慶長役に朝鮮水軍を全滅するに至つた基因を爲したのであつて、此の一戰を以て全戦局の運命を決したる會戰と見るは当たらないと信ずる。(有馬成甫(1942), 前掲書, pp.99-100).

다. 그리고 종래에는 엘프리드 세이어 머헨(Alfred Thayer Mahan)의 ‘해상권(海上權) 이론’은 임진왜란 당시에는 적용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많은 논자들이 조선역에서 성과를 얻을 수 없었던 원인을 일본 수군이 불리했던 것에 귀결시킨다. 이는 “해상권의 쟁패는 전쟁의 국면을 지배한다”고 하는 이념에 기반한 논의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더욱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머헨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해상권력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머헨 시대의 해상권력이라는 이념과, 조선역 당시의 사정과는 전혀 그 경우가 다르다. …(중략)… 머헨이 말하고 있는 의미의 해상권력의 사상은 아직 적용할 수 없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언하면 조선역 시대에 있어서는, 육상작전의 도움 없이 수상병력만으로는 도저히 적 수상병력을 파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바다를 제압하는 자는 세계를 제압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주 이야기되고 있다. 이 이념은 일견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중략)… 조선역의 경우에는, 조선 수군은 누누이 우리 수군의 일부를 파괴했지만, 나아가 우리 병참교통선을 위협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혹은 우리 작전을 방해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서 것도 불가능하여, 결국 조선 수군은 해상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⁵⁰⁾

앞서 밝힌 것과 같이 189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까지 일본의

50) 論者多く朝鮮役の成果を完ふし得ざりし原因を日本水軍の不利なりしことに歸するものがある。是は「海上權の爭覇は全戰局を支配す」と言ふ理念に基いた議論である。然し此の議論は更に検討をしなくてはならないと思う。マハン以來今日に到って海上權力なる語が多く用ひられて居るが、嚴密に言へばマハン時代の海上權力なる理念は、朝鮮役當時の事情とは全くその境遇を異にして居た。…(中略)…マハンの謂つて居った意味の海上權力なる思想は未だ適用することは出来ないと云はなければならぬ。換言すれば朝鮮役時代に在ては、陸上作戰の助けなく水上兵力のみによっては到底敵水上兵力を破壊することが出来なかつたのである。「海を制するものは世界を制す。」と云ふことがよく言はれて居る。此の理念は一見真理なるかの如く感ぜらるるか事實は決して然らず。…(中略)…朝鮮役の場合に於ては、朝鮮水軍は屢々我が水軍の一部を破壊したが、進んで我が兵站交通線を脅かすことも出来ず、或は我が作戰を妨害する程積極的な行動にも出ることが出来ず、結局朝鮮水軍は海上權力を掌握することが出来なかつたのである。(有馬成甫(1942), 前掲書, pp.288-290).

해군 장교들은 머헨의 ‘해상권 이론’을 적용하여 임진왜란 해전을 해석했다. 이러한 해상권의 개념은 당시 해군의 확장을 바라던 일본 해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해외시장 진출을 꾀하던 일본에게 제해권 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었으므로, 해군은 해군력 확장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당시 해군 장교들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활약상을 자세히 서술함으로써 해군력이 전쟁 전체국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입증하였으며, 따라서 이순신의 사례는 일본 역사 속에서 머헨의 ‘해상권 이론’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사례로서 활용되었다.⁵¹⁾

세이호는 그러나 많은 선배 해군 장교들이 주장해온 바와 달리 임진왜란의 경우에는 머헨의 해상권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조선 수군이 일본의 병참교통선을 위협하지 못했고, 작전을 방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병참교통선이란 일본 본국과 부산항 사이의 해로교통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순신의 함대는 일본 본국과 부산항 사이의 교통선을 적극적으로 공격한 바 없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한다면 이순신과 그의 함대의 활동은 머헨이 주장하는 ‘제해권’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확실하다. 또한 세이호는 조선 수군이 일본의 작전을 방해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은 해상에서 일본의 수군을 격파하여 이들의 활동을 경상도 해안으로 제한시켰지만, 일본 수군이 육지에 상륙하여 도망가는 경우에 이들을 제압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따라서 이들은 해안가에 성을 짓고 농성을 벌이곤 했던 것이다. 따라서 위의 인용문에서의 “조선 수군은 해상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라는 세이호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순신과 그의 함대의 활동이 한반도 남쪽·서쪽에서의

51) 김준배(2018), 앞의 글, pp.93~94.

일본 수군의 활동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 수군의 활동은 일본 수군의 활동을 철저하게 차단하였으며, 따라서 일본은 본국과 부산항 사이의 병참교통선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부산항과 평양 간의 병참교통선은 유지하기는커녕 애초에 개척할 수도 없었다. 개전 이후 파죽지세로 북상한 일본군은 삼시간에 조선의 수도를 점령하였으나, 해로로 인한 보급이 제한되면서 육로를 통한 보급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때마침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의병(義兵)에 의해 육로를 통한 보급도 끊기며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⁵²⁾ 더군다나 이러한 해전에서의 거듭된 패전으로 인해 히데요시는 일본 수군에 해전을 피하고 연안에 성을 축조하라는 명령까지도 내리게 된 것이다.⁵³⁾ 따라서 세이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산도 해전에서의 일본 수군의 패전이 “하등 육상군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우리 작전을 방해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도 불가능”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세이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머헨이 주장하는 해상권의 개념은 19세기의 것으로서 16세기에 발생했던 임진왜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머헨 자신도 그의 저서에서 “전쟁 지역, 전쟁의 수행, 양 군대의 병력, 이동의 난이도 같은 것들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규모와 정도의 차이일 뿐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다”라고 지적한다.⁵⁴⁾ 한산도 해전을 비롯한 임진왜란의 해전들

52)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pp.52~53.

53) 北島万次,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995, p.111.

54) “과거의 역사를 연구한다면 원칙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 원칙은 성공과 실패 속에서 드러난다. 조건과 무기는 변화한다. 그러나 조건에 대처하거나 무기를 성공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의 전술에서, 또는 전략에 포함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전쟁작전에서 배울 수 있는 불변의 역사적 가르침을 존중해야만 한다. ... (중략) ... 전쟁 지역, 전쟁의 수행, 양군의 병력, 이동의 난이도 같은 것들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규모와 정도의 차이일 뿐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다. ... (중략) ... 해군 작전의 원칙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이 일본 수군을 해상에서 제압함으로써 일본군의 작전 반경을 제한시켰으며, 조선 수군에게는 해상 활동의 자유를 부여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상의 권력(sea power)’은 조선 수군에게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세이호의 주장에는 일견 일리가 있으나, 그의 주장을 자세히 분석해본다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승리한 해전의 의의를 격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존재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이호의 이러한 주장은 그 자신의 논문에서의 발언과도 일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그의 1933년 9월 논문 「만주국과 제국해군(滿洲國と帝國海軍)」에는 “제해권이 없었다면 일본군은 도저히 만주에서 이처럼 질풍신뢰(疾風迅雷)같은 전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⁵⁵⁾ 임진왜란 당시 그 자신의 언급과 같이 ‘질풍신뢰 같은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육군이 가로막힌 것은 수군이 합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에 발을 묶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결국 일본이 지리한 강화협상에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것이 결국 히데요시의 전략을 수정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한산도 해전을 ‘하등 육상군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은’ 해전이라고 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패전의 원인 미화

세이호는 또한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해상권을 장악했다”는 기존의 주장들 이외에도,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의 지휘관들이 서로 공을 다투었기 때문에 해전에서 패배했다”는 기존의 주장들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예를 들어 선배 해군 장교인 오가사와라

아니었다.”(엘프리트 세이어 머헨, 김주식 역,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1, 책세상, 1999, p.44).

55) 有馬成甫, 「滿洲國と帝國海軍」, 『戰友』279, 軍人會館出版部, 1933.9, p.22.

나가나리(小笠原長生)는 1902년의 저작 『일본제국 해상 권력사 강의(日本帝國海上權力史講義)』에서 이순신이 명(明)의 장수 진린(陳璘)과 어떻게 사이 좋게 지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며, 이를 일본의 수군 대장들이 서로 전공을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과 대조한다. 그리고는 이를 ‘승패를 가른 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⁵⁶⁾ 그러나 세이호는 “출정 장수들의 사이에 불화가 있어서 이것이 전쟁 국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더욱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⁵⁷⁾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지휘명령체통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당시의 정황에서 장수들이 스스로 난국을 처하기를 다투어, 나아가 연신 선봉을 겨룬 것을 불화라고 칭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우리 병사들의 공세정신이 왕성한 장점(美點)을 발휘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⁵⁸⁾

이처럼 세이호는 출정 장수들이 더 많은 공을 세우고자 선봉을 겨룬 것을 불화라고 칭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공세정신이 장점을 발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출정 장수들 간의 불화가 결국은 패배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이 후세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비난받아 온 것이며, 주요한 임진왜란 해전 실패의 원인으로 여겨져 온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해군 대좌(大佐, 대령) 출신의 고니시 다테히코(小西干比古)는 1940년 「조선정벌을 생각하다(朝鮮征伐を思ふ)」라는 글에서 “실로 공명의 다툼이 심했던 것 같다.

56) 小笠原長生, 『日本帝國海上權力史講義』, 海軍大學校, 1902.11, p.136.

57) 有馬成甫(1942), 前掲書, p.290.

58) 指揮命令系統の確立せざる當時の情況に於て、諸將が自ら難局に立たんことを在争ひ進んで挺身先陣を競ったことは不和と稱すべきにあらずして寧ろ我が將士の攻撃精神の旺盛なる美點を發揮したところのものであると観るべきであらうと思う。(有馬成甫(1942), 前掲書, p.291).

...(중략)... 도도 다카토라(藤堂高虎),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 등의 공명(功名) 경쟁은 패전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한다.⁵⁹⁾ 여기에서 세이호가 주장하는 것은 ‘장수들이 선봉을 겨룬 것은 공세정신의 장점을 발휘한 것’이지만, 결국 이러한 공세정신이 패전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그 장점은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담론들과 반대되는 이러한 세이호의 주장에는 논리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며, 일본 수군을 패배로 이끈 장수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은 전쟁, 임진왜란

군사사 연구는 과거 전쟁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 사례를 통해 현재 전쟁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는 것을 그 중요 의의 중 하나로 한다. 그러나 앞서와 같은 작업을 통해 『조선역 수군사』는 임진왜란 해전사를 군사학의 관점에서 연구한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교훈을 도출하는 데에 실패한다. 그에 의하면 조선 수군이 해전에서 승리한 것은 전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일본 수군의 장수들은 전공을 다툼으로써 해전에서 패배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장점이 발휘된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전투에서의 승리한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된 원인을 장점이라고 칭하며 미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진왜란은 일본 측 입장에서 보자면 실패한 전쟁이지만 어쩌서 실패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전쟁이 되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조선역의 교훈은 이르는 곳마다 연진연승한 우리 군이 어쩌서 종래에는 전과를

59) 實に功名争ひが激しかったらしい。…(中略)… 藤堂、加藤等の功名競争は敗軍の大原因をなして居る。(小西干比古, 「朝鮮征伐を思ふ」, 『日本及日本人』390, 金尾文淵堂, 1940.11, p.19).

거두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 점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지나사변(支那事變, 중일전쟁)에 있어서 특히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시는 ‘조선역과 같이 방심하여 실패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 국민의 연구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⁶⁰⁾

위에서 세이호는 임진왜란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은 ‘어찌서 일본이 실패하였는가’이며, 이것이 대륙침략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생각건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임진왜란에서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세이호는 『조선역 수군사』라고 하는 군사학 관점에서 바라본 임진왜란 해전사에 관해 책을 간행하며 이를 통해 현재 중일전쟁에 교훈을 주고자 했다. 당연히 그 주된 분석 대상은 해전이었으며, 임진왜란 전체 국면에 해전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관해서 논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음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전에서의 승패가 임진왜란 전체 국면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일본 수군의 장수들이 서로 공을 다투어 전투에서 패배한 것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장점이 발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이 조선 수군에 패배한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현 시점에서 어찌서 임진왜란 해전사를 분석해야 하는지에 관해 그 의의를

60) 朝鮮役の教訓は到る處に連戰連勝した我軍が何故終極的な戰果を完うし得なかつたかと云ふことに歸すべきであらう。此点は現下我國の直面して居つ支那事變に於て特に甚深の考慮を尽さなくてはならないことである。一言にして言へば再び朝鮮役の如き不覺を繰返さざる様國民の研究と努力とを必要とすると云ふことである。想ふに戰爭の勝敗を決するところのものは決して單純のものではない。(有馬成甫(1942), 前掲書, pp.296~297).

상실하게 만든다.

오히려 세이호는 임진왜란을 통해 교훈을 얻기보다 이를 통해 일본을 칭송하기에 주력한다. 그에 의하면 임진왜란의 의의는 황위를 해외에 떨친 것이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전투에는 때때로 승패가 있으나, 더욱이 최후에는 히데요시의 사망(薨去)에 의해 한 뼘의 땅도 획득하지 못하고 방기(放棄)했기 때문에 연래의 출병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책임은 오히려 히데요시가 죽은 후 국내가 갑자기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귀결시켜야 하며, 히데요시 자신의 실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크게 황위를 해외에 발양했다고 하는 사실에 이르러는, 단지 이를 히데요시의 공적으로 해야만 한다. 이 점에 조선역의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⁶¹⁾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세이호는 일본군이 임진왜란에서 실패한 이유가 히데요시의 사망 이후 일본의 국내 정치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명백히 군사학의 관점에서 임진왜란을 분석한 그가 내리는 전쟁 실패의 원인은, 군비(軍備) 혹은 전략(戰略)의 문제가 아니다. 오직 일본 내부의 정치적 불안에 의함이다.

이에 더하여 임진왜란 해전사를 분석함을 통해 세이호가 내리는 결론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은 바로 ‘인적요소’라는 것이다.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인적요소로서, 실로 국민의 의지와 기개(志氣) 여하에 있는 점을 명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끈고하고 결집할 때에 울산성 농성전에서

61) 軍事的觀點からすれば、戦闘には時に勝敗あり、且つ最後に秀吉の薨去に依て寸土をも獲得せずして放棄したから、年来の出師の目的を達し得なかつたとも言へる。然しその失敗の責任は寧ろ秀吉歿後の国内が忽焉として不統一となったことに帰すべきもので秀吉自身の失敗とは言へない。而して大に皇威を海外に發揚したと言ふ事實に至っては、只之を秀吉の功績とすべきである。此の点に朝鮮役の意義があり價値が存するのである。(有馬成甫(1942), 前掲書, p.284).

보여준 병사들의 인고를 생각하고, 대부대의 적군을 만나서는 사천 신寨(泗川新寨) 전투에서 시마즈군이 보여준 훌륭한 계략과 용감한 전투를 생각하고, 또한 적의 감언이설에 대해서는 고니시의 착오(錯誤)을 되새겨서, 이러한 귀중한 선배의 체험을 활용하여 이로써 이번 전쟁(事變)의 전과를 달성하고, 황위 발양의 궁극적 성과를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국민이 직면할 책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⁶²⁾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세이호는 인적요소가 전쟁 승리의 핵심요소이며, 이러한 선배들의 체험을 활용하여 이번 전쟁에서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일본 국민이 다해야 하는 책무라고 주장한다. 군사학의 관점에서 전쟁사를 분석한 그가 내리는 결론이 제도나 전략·전술의 측면이 아니라, 결국 전쟁에서의 승리는 ‘병사들의 인고’, ‘용감한 전투’ 등 정신적 측면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시 일본에 ‘의지력으로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등의 ‘정신국방(精神國防)’이라는 말이 성행했던 것을 생각해보면,⁶³⁾ 이는 당시 시대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보다 놀라운 것은 임진왜란 해전에 관한 연구 이후에 세이호가 언급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례들은 오로지 육상전투 후

62) 核心を為すところのものは、云ふ迄もなく人的要素であって、實に國民の志氣如何に在ることを銘記しなくてはならない。困苦缺乏に遭ふては蔚山籠城に示したる將士の忍苦を偲び、大敵に遭ふては泗川新寨に島津軍の顯はしたる善謀勇闘を思ひ、また敵方の甘言に接しては小西の陥れる錯誤に鑑み、夫れ等貴重なる先輩の体験を活用し、以て今次事變の戰果を完ふし、皇威發揚の終極的成果を確保せんことに努むべきは、是れ當今我が國民の直面せる責務であると言はねばならぬ。(有馬成甫(1942), 前掲書, p.297).

63) 사토 데쓰타로도 1936년 『사상대책 정신국방(思想対策精神國防：永遠性の非常時に備へよ)』이라는 책을 간행하여 “정신국방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로지 황국 일본에서만 처음으로 보이는 특수한 국방, 즉, 만국에 탁월한 국체의 망위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佐藤鉄太郎, 『思想対策精神國防：永遠性の非常時に備へよ』, 大日本四恩會事務所, 1936, p.4).

은 외교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 스스로가 자신의 저서에서 임진왜란 해전의 의의를 격하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세이호는 과거 일본의 전쟁 사례인 임진왜란 해전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전쟁에 당면한 지금 일본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고자 했지만, 스스로 해전을 의미 없게 만들고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 장수들을 미화함으로써, 군비나 전략이 아닌 국내 정치상황이 실패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전쟁의 핵심은 ‘병사들의 인고’와 ‘용감함’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가 저술한 『조선역 수군사』는 본래의 군사학적 전쟁사 분석이라는 목적을 상실한다. 따라서 종래에는 자신의 일본 우월주의와 신국사상을 강화시키는, 또한 현재의 정치적 목적에 맞추어 일본인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하고 사기를 고양시키는 데에만 기여하고자 노력한 저술이 되어버렸다고 평가해야 적절할 것이다.

태평양전쟁이 종료된 이후 발표된 세이호의 글에서도 『조선역 수군사』와 유사한 종류의 주장이 발견된다. 그는 1958년 6월 「조선역의 해전(朝鮮役の海戰)」이라는 글을 『세계의 함선(世界の艦船)』 11호에 발표한다. 여기에서 그는 이순신을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순신이 기용되어 지휘를 했을 때에는 일본 수군에 연승했다. 그래서 그를 불세출의 영웅처럼 칭찬하는 역사가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세한 함대를 갖고 열세에 이긴 것은 당연하고, 이 같은 경우에 그 승리의 원인을 전부 이순신의 위대함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를 평범한 사령관이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하지만, 불세출의 영웅이라든가, 넬슨(Horatio Nelson)에 비할 만하다든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⁶⁴⁾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세이호는 이순신이 “우세한 함대를 갖고

64) 有馬成甫, 「朝鮮役の海戰」, 『世界の艦船』11, 海人社, 1958.6, p.50.

열세에 이긴 것은 당연하다”며, 그를 ‘불세출의 영웅’ 혹은 ‘넬슨에 비할 만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발언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일본 해군 전략사상의 기초를 세운 사토 데쓰타로(佐藤鉄太郎)가 1908년 『제국 국방사론(帝國国防史論)』에서 언급한 다음의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고래(古來) 전쟁의 장수로서 ‘기습군과 정공(正攻)군을 합치고 나누는 것(奇正分合)’을 지극히 교묘하게 활용한 자는 결코 한둘에 그치지 않는다. 나폴레옹(Napoléon)이 “전체로 부분을 치라”고 한 것도 이 뜻일 뿐이다. 그러나 해군 장수로서 이 사례를 살펴보면, 앞서 동양에서는 한국의 장수 이순신, 서양에서는 영국의 장수 넬슨을 들지 않으면 안 된다.⁶⁵⁾

위에 보이는 사토 데쓰타로의 주장은 세이호의 주장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다. “전체로 부분을 치라”는 것은 즉 ‘우세한 병력으로 열세의 병력을 치라’는 뜻이다. 이것은 일견 쉬워 보일 수 있으나, 아군의 대부대를 자신이 원하는 곳, 예를 들어 적군이 취약한 곳에 정확히 투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동력과 판단력, 정보력 등이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다. 나폴레옹도 이와 같은 전술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유럽을 제패할 수 있었다. 기동이 자유롭지 않은 함선으로 전투를 벌이는 해군이 이를 실행하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술하게 많았던 역사 속 해군 장수들 속에서 전술을 실제로 행했던 사람은 이순신과 넬슨뿐이라고 사토 데쓰타로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우세한 병력으로 열세의 병력을 치면 이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우며, 이것

65) 古來ノ戰將ニシテ奇正分合ノ妙用ヲ尽シタルモノ必ズシモーニニ止ラズ。「ナポレオン」ガ「全ヲ以テ其ノ分ヲ擊ス」ト云ヒタルモコノ意義ニ外ナラヌノデアル。サリナガラ海軍將官トシテ之ヲ看レバ、先東洋ニアッテハ韓將李舜臣、西洋ニテハ英將「ネルソン」ヲ推サナケレバナラス。(佐藤鉄太郎, 『帝國国防史論(上)』, 原書房, 1908, p.399).

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장수의 자질인 것이다. 따라서 나폴레옹이, 그리고 넬슨이 높게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어찌보면 세이호의 주장대로 “우세한 함대를 갖고 열세에 이긴 것은 당연”하지만, 그 상황 자체를 만드는 것이 전술의 기본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세이호가 해군 소장 출신의 군사사 연구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대목은 세이호가 의도적으로 이순신을 격하시키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일 그가 의도적으로 이순신을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의 군사적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해군 장교이자 군사사 연구가였던 세이호는 1942년의 그의 저술 『조선역 수군사』를 통해 전쟁에 한창이던 일본에 교훈을 주고자 했다. 그는 이 저술에서 임진왜란 당시 개개 해전의 경위와 함께, 조선·일본 양쪽 군대의 선박 구조, 병기의 기능 등을 상세하게 연구함으로써, 임진왜란 해전에 관한 많은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세이호가 자신의 임진왜란 해전 연구를 통해 그려낸 것은 부정적인 면이 가득했던 조선의 정치 제도 및 개인주의적인 조선인, 군인 정신이 결여된 이순신과, 이에 대비되는 용맹하고 훌륭한 일본인이었다. 그는 이러한 모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기존의 연구와 반대되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제시되는 그의 논거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상세한 연구의 결과 임진왜란 해전이 전쟁 전체 국면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조선 수군이 일본의 보급선을 차단하지 못한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선 수군의 활약으로 일본의 육군이 결국 뜻하는 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는 일본 장수들이 공을 다투어 결국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을 미화하며, 이는 공세정신이 발휘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처럼 그는 스스로의 상세한 연구를 통해 임진왜란에서의 실패의 원인을 찾고도, 이를 변호하여 스스로 자신의 논지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반복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인적 요소이며, 그 사례로서 육상전투와 외교에서의 사례를 거론하며, 해전에서의 교훈을 도출하는 데에 실패한다. 이러한 대대적인 연구의 결과, 결국 그의 저술은 『조선역 수군사』이면서도 임진왜란 해전의 의미를 찾는 데에 실패했고, 단지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데에만 주력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1941년에 『해국독본(海國讀本)』을 저술한 오가사와라 아쓰타카(小笠原淳隆)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순신을 대단히 칭찬하고, 이순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마다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의 활약상을 소개하여 두 장수가 취한 행동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순신이 “철저하게 적을 섬멸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⁶⁶⁾ 그러나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소년병들의 자살 특공을 미화하는 저서, 『소년 해국 이야기(少年海國物語)』(1942)에서는 이순신을 가리켜 “도고 대장만큼 훌륭하지는 않다”고 말하며, 훌륭한 참모는 될 수 있으나 사령관감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 제시되는 것은 “철저하게 적을 쳐부수려는 공격 정신이 없다”는 것이다.⁶⁷⁾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1942년을 전후한 이 시기의 일본에서 이순신을 서술했던 한 개인은, 자신의 불과 1년 전의 저술 내용을 완전히 부정해가면서 이순신보다 도고 헤이하치로가

66) 小笠原淳隆, 『海國讀本』, 富士出版社, 1941, pp.206-224.

67) 小笠原淳隆, 『少年海國物語』, 文祥堂, 1942, p.227.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1942년을 전후한 이 시기의 일본 문헌 속 이순신 담론에는 특수성이 보이며, 이는 태평양 전쟁 시기 고조되었던 일본 중심주의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9. 12. 31, 심사수정일 : 2020. 2. 6, 게재확정일 : 2020. 2. 18.)

주제어 : 이순신, 아리마 세이호, 조선역 수군사, 일본의 이순신 담론,
임진왜란

<참고문헌>

-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김문자, 「에도시대 豊臣秀吉에 대한 인식」, 『중앙사론』46, 중앙대 중앙사학 연구소, 2017.12.
- 김준배, 「메이지 시기 해군장교의 저술 속 이순신(李舜臣)-오가사와라 나가 나리(小笠原長生)의 저술을 중심으로」, 『軍史』107,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2018, DOI : 10.29212/mh.2018..107.83
- 「일본 문헌 속의 이순신 표상(表象)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 엘프리드 세이어 머헨, 김주식 역,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1, 책세상, 1999.
- 有馬成甫, 『非常時海軍國防讀本』, 海軍協會, 1933.8.
- 「滿洲國と帝國海軍」, 『戰友』279, 軍人會館出版部, 1933.9.
- 「織田信長と海軍」, 雄山閣編輯局編, 『日本海軍史』, 雄山閣, 1934.
- 「源平の海戦を論ず」, 『海と空』3-9, 海と空社, 1934.8.
- 「帝國海軍建設の精神とその發展」, 『日本精神講座』9, 新潮社, 1935.
- 「新興日本の覺醒と海軍建設の過程」, 『講演』4-3(下旬號), 聯合通信社, 1935.3.
- 「時事雜感」, 『2600』6-2, 自衛社, 1938.7.
- 櫻井成広, 『源平の海戦とその教訓』, 軍事史學會, 1939.
- 「皇國兵學の原理」, 鹿子木員信編, 『皇國學大綱』, 同文書院, 1941.
- 「白村江の戰鬪とその教訓」, 『軍事史研究』6-4, 軍事史學會, 1941.8.
- 『朝鮮役水軍史』, 海と空社, 1942.
- 「朝鮮役の海戦」, 『世界の艦船』11, 海人社, 1958.6.
- 『火砲の起源とその伝流』, 吉川弘文館, 1962.
- 石岡久夫編, 『日本兵法全集』, 人物往来社, 1967.
- 小笠原淳隆, 『海国讀本』, 富士出版社, 1941.
- 『少年海国物語』, 文祥堂, 1942.
- 小笠原長生, 『日本帝國海上權力史講義』, 海軍大学校, 1902.11.
- 北島万次,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早稲田大学博士論文, 1990.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995.

小西干比古, 「朝鮮征伐を思ふ」, 『日本及日本人』390, 金尾文淵堂, 1940.11.

佐藤鉄太郎, 『帝国国防史論(上)』, 原書房, 1908.

『思想対策精神国防：永遠性の非常時に備へよ』, 大日本四恩会事務所, 1936.

柴山尚則, 「文祿水師征韓始末－朝鮮李舜臣傳」, 『偕行社記事』82, 偕行社, 1892.

原剛・安岡昭男編, 『日本陸海軍事典』, 新人物往來社, 1997.

平田俊春, 「有馬成甫博士追悼の記」, 『軍事史學』9-3, 軍事史學會, 1973.12.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Kelly & Walsh, 1903.

(Abstract)

The Criticism against Admiral Lee Sun-sin depicted in 『A history of naval battles in the Imjin war』 by Arima Seiho

Kim, Joon-bae

This paper analyzes how Lee Sun-Sin is depicted in 『A history of naval battles in the Imjin war』, published in 1942, during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Pacific War, and what kind of authors' perceptions and backgrounds influenced these descriptions written in the book. This book was published by Arima Seiho, rear admiral, who was a war history expert already published various writings on war history.

What he portrayed in his 『A history of naval battles in the Imjin war』 were Joseon's negative side for political system, individualistic Koreans, Lee Sun-sin, who lacked military spirit, comparing to courageous and brilliant Japanese. To make this more effective, he argues against existing theories. However, his evidence presented with it was not convincing. He argues that these detailed studies show that the impact of the naval battles on the whole phase of the war was not significant, and that the Korean navy did not block Japanese supply lines. However, this is not true that Joseon navy's efforts have made it impossible for Japanese army to eventually wage war as intended. He also justifies that Japanese admirals struggled for achievement and merits, eventually leading to defeat in battle. In this way, he finds the cause of the failure in the Imjin War by his detailed research, weakens his argument by defending it, and repeats the lack of evidence. In conclusion, he argues that the most essential element of war is the human element, as is the case in ground battles by army and diplomacy. Through this, he fails to draw lessons from the naval battle. In the end, his book focused on just enhancing the Japanese pride, which can be understood by the influence of Japanese centralism during the Pacific War.

Keywords : Lee Sun-sin, Arima Seiho, A history of naval battles in the Imjin war, The image of Yi Sun-sin in Japanese literature, the Imjin war